티베트 노승, 인도서 사후삼매 '툭담' 들어

남인도서 입적한 게쎄 땐빠 다르걜 스님

김민재 객원기자

티베트 불교에서는 수행이 원만한 수행자가 사망하면, 그 의식이 한동안 육신에 머물며 삼매에 드는 현상이 있다고 믿는다. 미세한 의식이 육신에 머무는 동안 의학적으로 사망했더라도 사망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증거다. 12월 11일 '더 티베트 넷' '더 트리뷴' 등의 외신은 사후삼매에 든 티베트 스님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지난 11월 21일, 남인도 티베트 망명촌에 소재한 간댄사원에서 게쎄 땐빠 다르걜 스님이 세수 87세, 법랍 67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간댄사원 측은 "다르걜 스님은 티베트 망명 1세대로 동부티베트 따우지역 출신의 게쎄(한국의 불교학박사)이다. 살아생전 많은 제자들을 키우신 학승이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명상과 간경을 쉬지 않으신 스승"이라고 전했다.

살아생전 머물던 요사채에서 입적한 스님의 법구는 장례준비를 위해 입적한 장소에서 그 상태로 그대로 모셔졌다. 방에는 특별한 냉방시설이 없으며 시신 역시 부패방지처리 등 인위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장례준비와 기도를 위해 법구를 확인한 스님들에 의해 다르걜 스님이 사후삼매에 든 것으로 확인됐다.

티베트 불교에서 사후삼매는 '툭담'이라고 불리며 '마음이 삼매에 들었다'는 뜻이다. 육신은 의학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으나 수행자의 의식이 아직 몸

티베트 망명 1세대 학승
사원서 20일 넘게 삼매
장례준비 과정서 확인돼

안에 남아 깊은 삼매에 들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시신에는 사후 경직, 부패 등의 사망 징후가 보이지 않고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어떠한 보존 처리 없이 생전과 동일한 모습을 유지한다. 특별한 경우엔 시신의 크기가 신생아 크기로 줄어드는 경우도 보고된다.

다르걜 스님이 입적한 남인도의 간대



사후삼매인 '툭담'에 든 땐빠 다르걜 스님의 생전모습(좌)과 요사에 안치된 법구(우).
사진출처=간댄사원 제공

사원은 현재 평균 20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며 한 낮에는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날씨다. 그러나 현재 스님의 법구는 20일 넘게 사후삼매를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까지 사후경직이나 부패의 증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스님의 사후삼매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10일 간댄사원은 공식적으로 스님의 삼매상태를 인정하고 공표하였다.

소식은 현재 SNS등을 통해 현지 불자들 사이에 빠르게 전해지고 있다. 불자들은 "지난봄과 여름에도 사후삼매에 든 스승들이 계셨다. 희유한 모습을 스승들께서 보이시는 건 어렵고 힘든 시국에서 수행정진하라 끝까지 격려하시는 것"이라며 찬탄했다. 또 일부 불자들은 "살아생전 몇 번 뵈었는데 더 법을 여쭙지 못한게 안타깝다"는 반응도 보였다.

티베트 불교계에선 지난 3월과 7월에 티베트와 대만에서 각각 비구니 스님과 비구스님이 사후삼매에 든 사례가 보고됐다. 특히 3월 티베트에서 입적한 비구니 스님의 법구는 그 크기가 생전의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전해지며, 대만에서 입적한 스님은 28일간 사후삼매에 들어 있었다.

日 정토진종 종정에 '브라질인 박사'

일본계 브라질인 쵸유 스님
일본불교 역사상 최초사례



정토진종 오타니파의 제 26대 몬슈(종정)에 취임한 쵸유스님.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일본계 브라질인이자, 물리학 박사인 스님이 일본 최대 종단인 정토진종의 차기 종정에 올라 화제다. 지난 12월 13일 일본의 '아사히신문' '산케이 신문' 등 주요 언론은 이 놀라운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일본불교 최대 종단으로 꼽히는 정토진종 오타니파(大谷派)의 몬슈(門首. 한국의 종정)인 오타니 쵸유 스님은 지난 11월 말 공식으로 몬슈에 취임. 처음으로 언론과의 대담을 가졌다. 쵸유스님의 현재 국적은 브라질로 일본불교 역사상 최초로 남아메리카 출신의 종정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스님은 교토에서 태어났으나 정토진종 남아메리카 교구 포교사였던 아버지와 함께 1살의 나이에 온 가족이 브라질로 이민했다. 이후 브라질 국적을 취득, 상파울루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물리학자로 평생을 보냈다.

아버지의 간청으로 40세라는 늦은 나이에 출가한 쵸유 스님은 "일본어를 읽고 쓸 줄 알았지만 일상회화는 포르투갈어, 좌식의 사찰문화에도 고생이 많았다"며 출가와 학인시절을 회상했다. 그러던 스님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지난 2015년. 종단이 스님을 제26대 오타니파의 몬슈로 지명하면서 부터다.

전통적으로 대처종단인 정토진종은 대대로 몬슈가문에서 종정을 세습해 왔다. 그러나 25대 몬슈에게 자식이 없었기에 가장 가까운 혈통으로 사촌이었던 스님이 후계자로 지명된 것이다. 종단 측은 "당시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반대를 우려했으나, 종도들과 종단임원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쵸유 스님은 현재 일본 국내외 약 8,700개의 사찰과 750만 명의 종도를 거느린 종단을 지도하기 위해 고향인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옮아와 현재 교토에 거주하고 있다. 스님은 일본계 브라질인이자 물리학박사라는 자신의 배경을 활용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한 포교에 집중하고 있다.

스님은 "과학은 인류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역할이지만,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마음은 종교에서 나온다"며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는 국적, 인종,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평등'을 가르친다. 다양한 언어, 문화, 음식이 있더라도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염불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하겠다"며 포부를 보였다. 또 "모든 존재가 진정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이보다 더 필수적인 것이 없다"며 평화와 조화를 위해 불법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세계 음악가들, 헤비메탈에 불교 접목

포르투칼 · 미국 · 대만 등
데스메탈 밴드 음악 '주목'
불교서 영감 받아 작곡
헤비메탈에 '열반' 담아



최근 불교의 다르마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최근 불교의 다르마(Dharma)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불교만의 평온과 '헤비메탈(heavy metal)'이란 음악 장르는 일반적으로 어울려 보이진 않지만, 헤비메탈 음악가들에게 불교와 헤비메탈은 열반, 즉 궁극적인 세계에서 만들어진 조합과 다름없게 여겨진다.

불교 매체 라이언스로어(Lion's roar)는 12월 10일(현지시간) "다르마와 헤비메탈이 콜라보를 이루는 것은 오직 시간문제였다"며 "전 세계 음악가들은 불교로부터 약간의 영향을 받거나 문화적 협력 형태로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교적 색체를 곡 또는 앨범 이미지에 차용한 헤비메탈 음악가들을 소개했다.

포르투칼의 데스메탈 밴드인 '더 퍼스트본(The Firstborn)'은 수행 지침서인 '티베트 사자의 서(The Tibetan Book of the Dead)'에서 영감을 얻은 그룹으로 유명하다. 2004년 발매된 그들의 첫 번째 LP앨범인 'The Unclenching of Fists'가 바로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한 곡이다. 이밖에 더 퍼스트본의 곡 'The Noble Search' 'Lions Between Men' 등도 "불교의 다르마와 대승불교 사상을 명시적으로 다루면서도 동양적인 분위기를 음악 전체의 스펙트럼에 가미한 노래"라고 소개했다.

미국의 메탈 밴드 'Sun O)))'와 'Yob'도 주목할 만 하다. 썬은 7번째 정규음반인 '캐논'에 모든 부처의 연민을 구현하는 보살인 관세음보살의 이야기를 담았다. 욥은 데뷔 초기부터 불교를 음반에 접목시켜 왔다. 욥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인 마이크 샤이트(Mike Scheidt)는 "과거 많은 동양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아왔지만, 최근 아파서 응급실에 입원한 동안 불교에 대한 탐구가 많은 영감을 일깨워줬다"고 했다.

불교를 변종시켜 음악에 접목시킨 또 다른 밴드는 캐나다의 '야만타카 소닉 타이탄(Yamantaka Sonic Titan)'이다. 이 밴드의 명칭은 일본 불교에서 교리를 수호하는 신인 '야만타카(바즈라바이라바: Vajrabhairava라고도 함)'와 미묵의 유명한 메탈밴드인 '슬립(Sleep)'의 곡명이었던 '소닉타이탄'을 결합한 것이다. 이 밴드에 대해 라이언스로어는 "밴드 이름을 딴 그들의 데뷔 LP앨범은 아름답고, 짜릿하고, 초월적이다. 음악, 탐험. 불교를 아우른 이 밴드는 음원보다 무대에서 더 강력한 파급력을 내뿜는다"고 극찬했다.

대만 최초의 데스메탈 밴드 '다르마(Dharma)'는 엄청난 리프(riffs)와 폭발적인 비트를 동반해 전통적인 산스크리트 경전을 그들만의 음악으로 재탄생시키는 음악 작업에 몰두한다. 라이언스로어는 "다르마와 다른 밴드를 구별하는 것은 비구니 스님이 전통적인 찬불독송으로 퍼포먼스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헤비메탈 음악 목탁으로 연주한 스님

日 코산 스님, 불교 악기로
메탈리카 '엔터 샌드만' 등



일본의 한 스님이 유명 헤비메탈 밴드인 '메탈리카(Metallica)'의 곡을 목탁 등 불교 도구를 이용해 커버한 영상이 전 세계인들에게 화제를 끌고 있다.

뉴질랜드 일간신문 '뉴질랜드헤럴드(NzHerald)'는 12월 12일(현지시간) "메탈리카의 노래를 커버한 코산(Kossan) 스님의 영상<사진>이 입소문을 타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유튜브 영상을 소개했다. 메탈리카는 미국의 헤비메탈 록밴드로, 2004년과 2009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우수 메탈음악상을 거머쥔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스님은 메탈리카의 히트곡 '엔터 샌드만(Enter Sandman)'을 부르면서 불교 악기로 반주한다. 엔터 샌드만은 1991년 메탈리카의 셀프타이틀 앨범 타이틀곡으로, 34회 그래미 어워즈 록음악 부문 후보에 오를 만큼 인기를 끌었다.

해당 영상은 현재(16일 기준) 유튜브에서 약 14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당신은 2020년에 필요한 영웅" "이만큼 헤비메탈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본 적 없다" "메탈리카는 다음 콘서트에 그와 무대에 함께해야 한다"는 등의 극찬을 쏟아냈다. 박정현 객원기자

